

SPECIAL ISSU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5;54(4):353-359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통일은 치유다 : 분단과 통일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의학교육학과

전 우 택

Unification Is Healing : Psychiatric Contemplation of Korean Peninsula Division and Unification

Woo Taek Jeon, MD, PhD

Departments of Psychiatry,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Koreans have repeatedly experienced societal traumas, of which Korean Peninsula division and 6.25 are the greatest sources of trauma. Such division and the Korean War have destroyed the concept of "nation community," "town community," and "rational community" in the Korean people. Thus, Korean people have come to 1) live in a society with no recognition of community, 2) obsession with extreme ideologism, 3) lower ability to resolve conflict making societal dissension more serious. For the healing of this trauma, the following projects are needed : 1) foreign case analysis of societal trauma healing, 2) analysis of each subject and healing, 3) rebuilding of nation, town, and ration community in Korean society, 4) creation of artwork that gives introspection to division and its sublimation, 5) take the challenge to sublimate suffering in order to create a higher mental state of individual and society. Thus, the professional role of a psychiatrist is important. First, administer professional treatment to those in need of medical psychiatric help who are suffering from societal trauma resulting from division. Second, grasp the mental and societal difficulties and special help needed for the various traumas. Third, help in creation of artwork dealing with the pain of division. Fourth, create a more culturally sensitive and appropriate psychiatric support method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Fifth, help in sublimating pain and finding meaning and maturation through it.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Unification is Healing."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5;54(4):353-359

KEY WORDS Unification · Korea unification · Societal trauma · Healing · Social healing · Division.

Received June 23, 2015
Revised June 23, 2015
Accepted June 23, 2015

Address for correspondence

Woo Taek Jeon, MD, PhD
Departments of Psychiatry,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3338-2510
Fax +82-2-364-5450
E-mail wtjeon@yuhs.ac

서론 : 사회적 트라우마의 영향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은, 304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대형 해난 사고였다. 그리고 1년에 5000여 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¹⁾ 규모만 좀 컸지, 이 사건은 흔히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먼저 이것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그리고 희생자 중 어린 고등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선장과 선원들은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승객들에게 선실에 그대로 있으라고 방송을 하면서 자기들만 빠져 나왔으며, 선박 회사의 불법적인 내부 수리와 과적, 해난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하여야 하는 공공 기관들의 무책임,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것은 거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갔다.²⁾ 자신의 자식과 가족들이 죽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은 다 울었고, 분노하였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에 대한 생각을 근

본적으로 다시 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 이런 사건을 우리는 '개인적 트라우마'가 아닌, '사회적 트라우마'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회적 트라우마'는 사회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만든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및 공동체 의식을 분열시킨다

사회적 트라우마는 사건 당사자 개인 차원의 영향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사회생활에 타격을 주어 공동체를 심각하게 분열시킨다. 즉, 사회적 트라우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서로 의지하여 공존하고 있으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린다.^{3,4)}

자기 자신과 집단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한다

사회적 트라우마는 자신이 이런 문제가 많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면서 스스로와 타인에 대하여 혐오감,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개인 및 사회의 보편적인 자기 통제력에 문제를

가지게 하여,⁵⁾ 일탈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개인의 정신 병리와 집단의 정신병리가 뒤섞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가지게 한다.

그 사회적 트라우마의 영향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게 한다

사회적 트라우마에 의하여 만들어진 병적인 집단의식은, 그것이 적절히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면서 다음 세대로까지 연결된다.⁶⁾ 결국 사회적 트라우마는 과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트라우마의 경험이 집단 트라우마 경험으로, 그리고 개인기억이 집단기억 현상으로 바뀌면서 나타나게 된다.⁷⁾

사회적 트라우마로서의 분단

분단에 의한 공동체 붕괴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사회적 트라우마는 세월호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 위안부로 상징되는 일제 식민시대, 제주 4.3으로 상징되는 건국 전후의 극심한 이념갈등,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극단적 냉전대결, 1970년 전태일의 분신으로 상징되는 산업화와 광주 5.18로 상징되는 민주화의 갈등 등, 한국인들은 현대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어 왔다. 그리고 발생한 사회적 트라우마가 미처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사회적 트라우마가 발생하여 중첩되면서, 한국인은 개인 및 집단의 정신 속에 그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이러한 현대사의 사건들과 사회적 트라우마는 그 다양한 원인들이 분단으로 모아졌고, 다시 분단으로부터 퍼져 나가는 양상을 가진다. 수천 년을 공동의 언어, 문화,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들만을 예외로 하고는 단일 국가 체제하에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었기에, 민족의 다수가 바랐던 것도 아닌,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적 분단과 그 이후 있었던 6.25라는 최악의 비극은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의 거대한 사회적 트라우마가 되었다. 이러한 분단과 6.25는 한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민족(民族)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왔다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과 수난은 타 민족에게 당한 일이었다. 그래서 오직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이유만으로 당해야 했던 그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은 강력한 민족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시작된 동족 내에서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극단적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잔혹한 적대적 행위들은 일제시대에 겪은 고통을 훨씬 더 남

는 일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민족보다도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들을 가지게 되었다. 즉 '민족공동체'가 붕괴된 것이다.

함께 살던 사람들의 '공간(空間)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왔다

분단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는 한반도가 단순히 38도선에서 분단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수많은 마을, 수많은 가족, 모든 삶의 공간 내에서도 분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조상 대대로 함께 살아왔던 한 마을의 사람들이 해방 후 좌, 우익으로 나누어졌고, 6.25를 전후로 한 마을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충돌, 살상이 있었다. 이 상처는 지금도 마을 안에 숨은 이야기로 남아 있고, 그로 인하여 지역공동체를 붕괴시켰다.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친밀감의 대상이 아닌, 의심과 두려움, 증오의 직, 간접적 대상으로 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가족, 친척, 친지 속에서도 그대로 발생하였다. 이것은 한국인에게 그들이 함께 살아온 삶의 '공간(空間)공동체'를 붕괴시킨 일이 되었다.

'이성(理性)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왔다

해방 이후 6.25를 거치면서 남한의 한국인들은 극심한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좌나 우나 하는 극단적 선택의 요구를 받아 왔다. 여기서 머뭇거리거나 또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자들은 즉각 죽음을 포함한 최악의 비난과 보복을 당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면서 분단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 토론 같은 것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냈다. 즉 무조건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박멸해 버려야 한다는 논리가 사회 전체를 주도하면서 합리적 경청(敬聽)과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성(理性)공동체'의 붕괴를 만든 것이다.

공동체 붕괴가 만든 한국인의 삶의 모습

이러한 분단의 결과로 만들어진 민족, 공간, 이성공동체의 붕괴는 한국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회 속에서 살게 되었다

분단과 6.25로 인한 민족, 공간, 이성공동체의 붕괴는 결국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진 법과 제도를 부정하고 불신하게 만들었다. 즉, 결국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회와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 가족,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연고가 닿는 사람들만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공의 이익이나

법질서, 정의 등은 얼마든지 뒤로 미루어 둘 수 있다는 생각 들을 하게 되었다.⁸⁾ 즉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안의 규칙을 지키며, 그것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운데 조화롭게 함께 사는 것’보다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악착같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사회의 생존방식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체라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공공(公共)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소집단으로서의 공동체’가 중요하여 혈연, 지연, 학연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나 혼자 살기’가 삶 속에서 좌절하게 되면 ‘나 혼자 죽어버리기’로 나타나게 되어 한국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이하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국가가 되었다.⁹⁾

극단적 이념주의에 집착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모든 사회적 문제를, 그 문제 자체가 아닌, 일종의 거대담론적 이념문제로 바꾸고, 그것은 다시 정치적 투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탈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전 세계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분단 체제가 만들어 놓은, 매우 특수한 한국적 현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6.25 등을 겪으면서 다른 모든 사회, 문화, 종교적 배경 등은 별개로 하고, 오직 그의 사상,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나는 하나만으로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 하도록 하였던 시대를 거쳐 오면서 이것은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강력하게 주입되어진 경험의 산물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 이념주의는 사상적으로 중간지대를 인정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 하여, 객관적 성찰이 불가능한 사회로 만들었다. 이러한 극단적 이념주의는 주체사상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난 북한이 남한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심각하게 갈등 해결 능력을 떨어뜨렸다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어 온 사회적 트라우마에 의하여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는 매우 왜곡되고 사회는 분열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왜곡과 분열의 결과 중 하나는 한국 사회가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그에 따라 사회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Park 등¹⁰⁾과 Park¹¹⁾에 의하면, 2010년 기준, 한국은 27개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사회 갈등이 심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 4위에서 2계단 상승한 것이다. 분석모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연간 82~246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한다. Jeong과 Ko¹²⁾의 연

구에서도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사회갈등지수가 2009년 3위, 2010년 4위, 2011년 5위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그동안 많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것을 사회발전과 결속의 도구로 사용하여 오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분단과 치유

이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는 분명히 정신적으로 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한국 사회 및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들의 정신 및 사회적 건강에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제부터는 그 치유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치유의 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치유의 대상

남한의 한국인들이 받은 분단에 의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있어 먼저 고려할 사항은 누구를 그 치유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고찰하고 정하는 그 자체가 한국에서는 사회적, 이념적,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내용이 된다. 그러나 민족의 분단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필자는 그 치유대상을 크게 4개 집단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

제1집단

해방 전후와 6.25, 그리고 그 이후 북한과의 군사적, 체제적 대치 속에서 군인, 경찰, 공무원 등으로 1선에서 활동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돌아가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다. 여기에는 최근의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폭침사건 등으로 인한 아군 측의 사상자들이 다 포함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수호, 발전을 위하여 가장 직접적인 희생을 하신 분들로 국가와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치유의 대상자로 삼아야 할 분들이다.

제2집단

해방 전후와 6.25 등의 과정 속에서 확고한 좌, 우의 사상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면서, 역사의 회오리 속에 떠밀려 다니다가 죽어갔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다. 예를 들어 제주 4.3에서 죽은 사람들 중 소수를 뺀 다수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사상과는 무관하게 좌우 대결 구도 속에서 죽어갔다.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였고,¹³⁾ 이를 토대로 공식적 사과를 한 바 있었다.¹⁴⁾ 또한 6.25의 인공치하에서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사상과는 상관없이 학살을 당

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사상과 반공사상이 극렬하게 충돌하던 시대의 흐름 속에서, 분단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이름 없는 희생과 상처들을 만들어 내었으며, 이들에 대한 치유는 한국 사회 전체 치유에 중요한 영역이며 의미를 가진다.

제3집단

분단 이후 다양한 사회운동이나 사회활동이 이념적으로 해석되면서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념이란 다음과 같은 4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¹⁵⁾ 즉 경제적 가치와 배분에 대한 좌우 이념 축,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는가,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가에 대한 인권에 대한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축, 개발 성장과 환경 보존에 대한 근대적 가치와 탈근대적 가치 축, 그리고 대북정책이나 대미관계, 국가 안보에 대한 공산주의와 반공주의 축이 그것이다. 분단 이후, 한국에서 사회운동 활동을 하게 되면 이념과 연관된 위의 네 가지 축이 자의나 타의에 의하여 모두 작동되고 해석되는 일들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순수하게 자유주의적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친북적 운동으로 해석되고 정부의 탄압 대상이 되었던 일들도 있었고, 반대로 공산주의 운동이면서도 그것을 탈근대적 가치운동이나 자유주의적 운동으로 위장하여 중복적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장 속에서 다양하게 혼합되면서 각 운동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어렵게 된 것이 한국 사회에서 혼란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원래 생각과는 달리 고통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에 대한 해석과 치유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 과제가 된다.

제4집단

현대 한국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이다. 특정한 사회적 트라우마에 의하여 직접적인 상처를 받지 않았더라도, 모든 사회적 트라우마는 그 전체 사회구성원에 직, 간접적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결국 각 개인의 의식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일반적 치료 내용

이러한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치유

이것은 사회적 트라우마에 의하여 개인이 받은 신체적, 정

신적 상처와 충격을 의학적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치료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관련 과목의 진료를 받고, 그것을 국가가 의료보험이나 기타 재원으로 지원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때로는 특정한 사건과 연관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진료기관을 만들어 그들만을 위한 진료를 하여 주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치유는 한 개인의 구체적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치유 활동이 된다.

그러나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를 이런 “개인치유”로만 국한하게 된다면 이것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첫째, 모든 사회적 트라우마는 강력한 사회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에 있어서는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사건에 의하여 받은 충상에 따른 치료가 교통사고에 의한 상처 치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다루어지게 되면, 환자들은 큰 어려움과 혼란을 가지게 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의학적 치료모델이 적용되기 때문에, 희생자에게 통증이나 증상이 없는 상태까지를 목표로 하고, 사고 이전의 온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상태로의 복귀를 위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셋째, 일반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에게만 관심을 두어 그 가족과 중요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치유적 활동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치유”만으로는 사회적 트라우마에 의하여 야기된 인간고통에 대한 통합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사회적 대응

사회적 트라우마에 의한 상처와 고통에 대하여 “개인치유”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치유 방법으로 “사회적 대응”이 있다. 사회적 대응이란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진상규명, 처벌, 가해자나 국가의 사과, 관련 법률 제정, 관련 기구 설치, 보상 및 배상, 기념사업과 같은 사회적, 국가적 행위를 말한다. 나아가 사회적 트라우마를 소재로 한 시, 소설, 영화, 미술품 제작 등의 문화예술적 노력을 포함한다.^{18,19)} 따라서 이것은 “개인치유”가 주로 의학과 연관되는 것에 비하여, 사회과학과 인문예술이 연관된다. 이러한 “사회적 대응”은 사회적 트라우마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희생자들의 사회적 고통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대응”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만 집중하여 희생자 개개인의 실제적 통증과 고통 자체에는 오히려 둔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대응을 이루면, 그것으로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책임은 다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사건 이전 상태로의 회복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셋째, 사건을 다루는 많은 인문예술적 접근은 사실 공개,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표현 등에만 집중하여, 그 고통의 의미 발견과 승화에는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따라서 “사회적 대응”도 사회적 트라우마에 의하여 야기된 인간고통에 대한 통합적 치유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가지게 된다.

분단 치유를 위한 미래 과제

그 동안 한국 사회는 분단에 의한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하여 나름대로 그 치유를 위하여 노력을 해왔다. 개인치유를 위하여 정부의 국가보훈처와 보훈병원이 활동해 왔고, 이들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을 지원하였으며, 광주 트라우마 센터와 같은 특별 지원기관들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적 대응으로서 다양한 국가 법률들을 제정하고 국가 기념일과 추모일을 제정하여 지켜 왔으며, 기념관을 만들어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또한 많은 소설과 영화들이 이와 연관되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는 분단에 의한 사회적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결과에서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치유적 활동을 더 해야 하는 것일까? 이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제안할 수 있다.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이 있어야 한다

분단은 아니지만, 거대한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고,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의 분단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점들을 시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아일랜드의 신교도, 구교도 간의 폭력적 갈등과 평화협정,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과 진실과 화해위원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 기간의 소위 “더러운 전쟁(dirty war)”,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와의 갈등에 의한 상처, 르완다의 투치족과 후치족 사이의 내전과 대량 살육 및 그 이후의 화해 등은 모두 사회적 트라우마와 그 치유에 있어 본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여야 할지 풍부한 자료를 주는 사례들이다. 또한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가 통일 이후 통일에 의한 사회적 충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독일의 사례도 분단과 통일에 의한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 연구를 위해 중요한 해외 사례이다.

대상 집단별 상처와 치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유대상이 되는 각 집단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과 고통, 치유정도 및 치유의 필요 내용들을 분석하고, 개인 치유와 사회적 대응,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각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집단에 대한 개인치유와 사회적 대응은 그 동안 한국 사회가 분단 이후 추진해 온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였고, 그것을 분단에 대한 치유의 전부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정말 충분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그들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의 일반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더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조치들이 지속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2집단에 대한 치유활동은, 많은 경우, 그 직접적 희생자들이 이미 다 사망하였기에, 그들에 대한 개인치유 활동은 현재 이루어지기 어려운 면이 많다. 그러나 그 유가족들은 그 사건 이후에도 연좌제 등 다양한 사회적 제약 속에서 긴 기간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한 상처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사회적 대응 부분에서도 관련 법규와 추념일, 기념행사 등에서 실제로 치유적 효과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부분을 과제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분단에 의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한국 사회에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고통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회적 대응 및 그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데 필요로 된다.

제3집단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가 향후 분단에 대한 치유 부분에 있어 가장 논쟁적이고도 어려운 과제로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화 운동 관련자, 광주 5.18 희생자, 노동운동 활동에 의해 고통을 받은 사람 등은 분단과 개발독재 시대 속에서 소위 좌우 이념 등과 관련되어 논란 속에 들어갔고, 그 갈등은 국가적으로 그에 대한 성격 규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갈등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한국 사회의 치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 해결 능력은 이들에 대한 논의와 그 치유 과정 노력을 통하여 높아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제4집단에 대한 치유 논의는 미래 한국 사회가 과연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 이를 위하여 사회의 다양한 전문영역, 즉 정선의 학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를 위한 융합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단으로 붕괴된 민족, 공간, 이성공동체를 복구하여야 한다

특히 제4집단의 치유를 위하여 필요로 되는 것은 민족, 공

간, 이성공동체의 복구이다.

첫째, ‘공간공동체’의 복구이다. 여기서 ‘공간공동체’란 배타적 이익 집단으로서의 지연(地緣)으로 묶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같은 공간, 같은 지역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념, 경제수준, 종교, 사회계층 등의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를 의미 있는 인간으로 인정하고 함께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 속에서 이것은 ‘작은 규모의 공동체 운동’으로 시작되어 점차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와 경험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연관이 될 것이다.

둘째, ‘이성공동체’의 복구이다. 공간공동체의 복원은 이성공동체의 복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신과 이념, 경제적 수준, 종교, 사회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타협이나 공동의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성의 힘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있어야만, 공간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성공동체의 복원은 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어릴 때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과 대화를 훈련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교육,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언론 등 사회 각 영역의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셋째, ‘민족공동체’의 복구이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측면에서 남북한 체제가 통일되는 것을 넘어선다. 현대사 속에서 다양한 이유와 내용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남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있었다. 분단 과정과 6.25 과정에서도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북한의 독재 정권에 의하여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치유와 사회적 대응,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치유적 활동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비로소 민족공동체는 복원될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 즉 사람의 통일이 될 것이다.^{21,22)} 그런 의미에서 남한 사람들에 대한 치유적 활동 경험과 그 축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을 토대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치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의 상처를 승화시킬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과 사회 전체 구성원은 그 상처의 실체와 의미를 이해하고, 그 고통을 승화시키는 힘을 가지기 힘든 경우들이 많다. 이 때 이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따라서 시, 소설, 음악, 무용, 미술,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은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트라우마를 예술의 소재로 다루는 그 자체가 아직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극복을 위한 승화를 다루는 작품들은 나오기 힘들다.⁷⁾ 그것이 아직도 분단이 되어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분단에 대한 훌륭한 예술 작품이 나오기 힘든 이유 중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그 소재를 안전하게 다루기 힘든 사회에서는 예술 작품이 그저 사실에 대한 고발, 그에 대한 분노, 희생자들의 결집, 선동 등을 목적으로 한 왜곡된 과장 등에서 그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들을 다룬 기존 예술 작품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함께, 사회적 트라우마 전체에 대한 깊은 성찰과 예술적 승화가 이루어지는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을 승화시켜 더 높은 정신세계에 도달하는 개인과 사회를 만드는 것에 도전하여야 한다

진정한 치유는 그 사회적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그런 사회적 트라우마가 발생하기 전보다 더 성숙하고 높은 정신과 제도를 가진 사회가 만들어지고 개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23,24)}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갈등과 상처를 가졌던 그 사회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간디에 의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은 인도가 영국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운동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으나, 그것을 통하여 인류는 평화사상과 평화운동에 거대한 전진을 이루게 된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활동은 잔혹한 인종차별정책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처리하려는 남아공의 정치적 노력이었으나, 이것은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보편적 인류의 정신적 가치로 만드는 데 거대한 전진을 이루게 하였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분단이라는 상처의 해결과 극복을 위한 노력들은 작게는 한반도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인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통일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단되고 대립하고 있는 사회의 통합인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격차를 가지고 있는 두 개 사회의 통합을 보여 주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 통일은 치유다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 역할은 다양하고 중요하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에 의한 사회적 트라우마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물질남용 등 정신의학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둘째, 제1집단에서부터 제4집단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가지는 정신적, 사회적인

어려움과 그 특수한 도움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대책을 세우는 일에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사회에 공간, 이성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에 정신의학적 전문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넷째, 남한에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에 대한 진료 등을 통하여 북한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학적 필요를 파악하며, 그들의 문화에 좀 더 예민하고 적합한 정신의학적 지원 방법을 개발하고 차세대에 교육할 수 있다. 다섯째, 분단에 의한 상처를 다루는 예술 작품 제작에 임상 사례나 경험 등을 가지고 직,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정신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고통의 승화와 그를 통한 의미의 발견, 성숙 등의 주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회에 제시하여, 분단에 의한 고통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회적 트라우마이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우리가 원하였던 분단은 아니었어도, 분단에 의하여 민족공동체, 공간공동체, 이성공동체가 붕괴된 한국 사회 속에서, 이것을 다시 복원하고, 붕괴 이전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분단을 통하여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인류의 정신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한 시각과 의미 부여를 가지고 “치유로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통일은 비로소 성공적이고도 의미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통일은 치유다”.

중심 단어 : 통일 · 한반도 통일 · 사회적 트라우마 · 치유 · 사회치유 · 분단.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2014S1A5B6037127).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has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Available from: http://taas.koroad.or.kr/reportSearch.sv?s_flag=04#.
- 2) Park ML. Politics of the sewol sinking: social, institutional reform as/with a human healing. *Social Review of History* 2015;110:8-38.
- 3) Famula K. Healing societal traumas and transforming collective consciousness: a path to a culture of healing. Austria: Thesis to the European University Center for Peace Studies;2007.
- 4) Cohen BE, Neylan TC, Yaffe K, Samuelson KW, Li Y, Barnes D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cognitive function: findings from the mind your heart study. *J Clin Psychiatry* 2013;74:1063-1070.
- 5) Alexander JC. Toward a theory of cultural trauma. In: Alexander JC, Eyerman R, Giesen B, Smelser NJ, Sztompka P, editors. *Cultural trauma and collective identit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2004. p.1-30.
- 6) Hilty A. Jeju Olle and the Korean psyche: healing minds and hearts. *The Jeju Weekly* [serial online] 2011 Nov [cited 2011 Nov 12]. Available from: <http://www.jeju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
- 7) Jeon WT. Collective memory an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society. *J Korean Assoc Soc Psychiatry* 2000;5:179-196.
- 8) Kang JM. *Code of Korean*. Seoul: Character and Thought;2006.
- 9) OECD Data. Suicide rates. Paris: OECD; 2015. Available from: <https://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
- 10) Park J, Kim YG, Lee DW, Kim SB. Social conflicts and economic cost. *CEO Inf* 2009;710:1-21.
- 11) Park J. Current state of social conflicts in republic of Korea. The second national cohesion symposium 2013 Aug 21; Seoul: Committee of National Cohesion Report;2013. p.3-14.
- 12) Jeong YH, Ko SJ. Social conflict index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a cross-section of 7 countr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4. p.1-138.
- 13) Nation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Investigation report of the Jeju 4.3 incident. Seoul: SunIn;2003.
- 14) Nation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White book of nation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f Jeju 4.3 incident. Seoul: SunIn;2008. p.113.
- 15) Kang WT. South-South conflict's id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analysis in South-South conflicts - Diagnosis and solution.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Changwon: Kyungnam University;2004. p.61.
- 16) Brandon H. Healing. In: Bloomfield D, Barnes T, Huysse L, editors. *Reconciliation after violent conflict: a handbook*. Stockholm: International IDEA;2003. p.77-88.
- 17) Woodside D, Santa Barbara J, Benner DG. Psychological trauma and social healing in Croatia. *Med Confl Surviv* 1999;15:355-367; discussion 391-393.
- 18) Kang SI, Kim KY, Kim KY, Kim HY, Song SY. New challenge of humanity in 21th century - healing. Chuncheon: Sanckeeck;2011.
- 19) Kang KS, Kim IJ, Yoon IS, Yoon HR, Jung RK. *Art and healing of humanity*. Chuncheon: Kangwon University;2013.
- 20) Reddemann L. *Imagination als heilsame kraft: zur behandlung von traumafolgen mit ressourcenorientierten verfahren*. 2nd ed. Stuttgart: Pfeiffer bei Klett-Cotta;2001.
- 21) Jeon WT. *For the South and North Korea Pelple's Unification*. Seoul: Oruem Publishing House;2000.
- 22) Jeon WT. *People's Unification, Land's Unific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2007.
- 23) Müller-Fahrenholz G. *The art of forgiveness: theological reflections on healing and reconciliation*. Geneva, Switzerland: WCC Publications;1996.
- 24) Botman HR, Petersen RM. *To remember and to heal: theological and psychological reflections on truth and reconciliation*. Capetown: Human and Rousseau;1996. p.47-56.